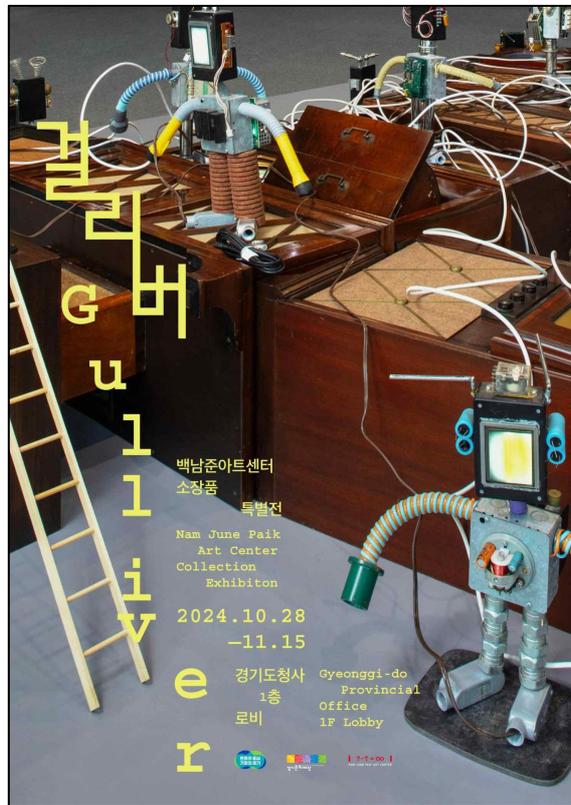


보도자료

제목	백남준아트센터 소장품 특별전 《걸리버》		
문의	전시: 이수영 학예연구사	t.031-201-8596	m.010-4288-2713
	취재: 이상아 학예연구사	t.031-201-8549	m.010-4739-5307
자료	이메일에 첨부된 자료 다운로드		
배포	2024.10.28.	쪽수	총 5매

백남준아트센터 소장품 특별전 《걸리버》 경기도청에서 개최



- ▶ 백남준아트센터, 경기도청 1층 로비에서 소장품 특별전 《걸리버》 개최
- ▶ 백남준의 대표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부수적인 음악〉, 〈피아노 콘서트〉 등 대형 미디어 월에 상영
- ▶ 기술과 함께할 새로운 세대의 통합을 다루는 〈걸리버〉를 통해 다양한 세대의 이야기를 포용하는 경기도의 미래를 제시

■ 전시개요

- 전 시 명 : 《걸리버》 *Gulliver*
- 전시기간 : 2024.10.28. - 2024.11.15.
- 전시장소 : 경기도청 신청사 1층 로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 참여작가 : 백남준
- 주최주관 : 경기문화재단, 백남준아트센터

■ 전시소개

백남준아트센터(관장 박남희)는 백남준아트센터 소장품 특별전 《걸리버》를 10월 28일부터 11월 15일까지 경기도청 1층 로비에서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백남준아트센터 소장품 〈걸리버〉와 백남준의 대표적인 퍼포먼스 영상으로 구성된 특별전이다. 〈걸리버〉는 누구에게나 친근한 『걸리버 여행기』에서 모티브를 따온 작품으로, 누워있는 걸리버 로봇 위에 소인국 릴리푸티언 로봇이 여럿 올라가 있는 형태의 대규모 설치 작품이다. 〈걸리버〉는 기술과 함께 할 새로운 세대의 통합을 다루고 있으며, 앞으로 더 많은 기회를 통해 다양한 세대의 이야기를 포용할 경기도의 미래를 제시한다.

경기도청 로비에 누워있는 거인 〈걸리버〉는 총길이가 4미터가 넘는 거대한 로봇이다. 총 11개의 오래된 텔레비전 케이스와 라디오 케이스 등이 걸리버의 몸을 이루고 있고, 모두 11개의 CRT 텔레비전에서 두 종류의 비디오를 보여준다. 하나는 사이보그가 첨단 미디어 환경 위로 성큼 걸어가 있는 장면과 컴퓨터 그래픽으로 구현한 자율주행이나 전자 도로를 질주하는 비디오이며, 또 하나의 비디오는 〈로봇 K-456〉과 전세계 곳곳의 풍경과 컴퓨터 그래픽을 번갈아 보여준다. 현재와 미래의 모습을 담은 비디오를 통해 백남준의 〈걸리버〉 역시 다양한 사회의 이야기와 상상을 담고 있다.

경기도청 로비의 대형 미디어월에서는 백남준과 백남준아트센터를 소개하는 영상 뿐 아니라, 백남준의 대표적인 퍼포먼스를 편집한 비디오가 함께 전시된다. 경기도청 방문객은 백남준의 대표적인 퍼포먼스 영상인 〈부수적인 음악〉(1984), 〈피아노 콘서트〉(1994/1997) 등을 통해 비디오카메라를 비롯한 다양한 매체를 이용한 백남준의 즉흥 퍼포먼스를 감상할 수 있으며, 백남준의 예술 세계를 보다 가깝게 느낄 수 있을 것이다.

백남준아트센터 소장품 특별전 《걸리버》는 10월 28일부터 11월 1일까지 개최하며, 경기도청 1층에서 누구나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운영 시간은 경기도청 열린민원실 운영 시간과 동일하게 평일 9시부터 18시까지이며, 주말은 휴관한다. 전시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백남준아트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자세한 사항은 백남준아트센터 홈페이지(www.njpartcenter.kr) 참조

■ 작품 소개

○ 백남준, <걸리버>, 2001

CRT TV 모니터 11대, 진공관 TV 케이스 11대, 진공관 라디오 케이스 1대, 릴리푸티언 로봇 18개(LCD 모니터 18개), 나무 사다리 3개, 비디오 분배기 4대, 4-채널 비디오, 컬러, 무성, DVD
59 x 432 x 371 cm



<걸리버>는 조나단 스위프트가 1726년에 쓴 『걸리버 여행기』에서 그 모티브를 따왔다. 바닥에 누워있는 거인 <걸리버>는 총 길이가 4미터가 넘는 거대한 로봇이다. 총 11개의 오래된 텔레비전 케이스와 라디오 케이스 등이 걸리버의 몸을 이루고 있고, 모두 11개의 CRT 텔레비전에서 두 종류의 비디오를 보여준다. 하나는 사이보그가 첨단 미디어 환경 위로 성큼 걸어가 있는 장면과 컴퓨터 그래픽으로 구현한 자율주행이나 전자 도로를 질주하는 비디오이며, 또 하나의 비디오는 <로봇 K-456>과 전 세계 곳곳의 풍경과 컴퓨터 그래픽을 번갈아 보여준다. 현재와 미래의 다양한 모습을 담은 비디오를 통해 백남준의 <걸리버> 역시 다양한 사회의 이야기와 상상을 담고 있다.

백남준이 걸리버와 함께 제작한 소인국 로봇인 릴리푸티언은 각종 기계 부품, 나사, 전선, 파이프 등이 그 몸체를 구성하고 있으며 머리는 5인치 LCD 텔레비전로 만들어졌다. 로봇 머리에서 보여주는 비디오는 백남준이 제작한 <로봇 K-456>이 뉴욕의 거리를 걸으며 펼치는 퍼포먼스, 장난감 로봇의 작동 모습, 비디오 신디사이저로 조작한 샬럿 무어먼의 퍼포먼스 등 다채롭고 화려한 컴퓨터 그래픽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백남준은 생기발랄한 릴리푸티언 로봇과 상대적으로 무기력하게 누워있는 거대한 걸리버의 대비를 연출하며 로봇들이 사다리를 타고 오르내리며 걸리버의 온몸을 전선으로 포박하고 있는 연극적 상황을 보여준다.

○ 백남준, 더글러스 데이비스, 요셉 보이스, <도큐멘타 6 위성 텔레캐스트>, 1977



1977년 6월 24일 독일 카셀에서 열렸던 카셀 도큐멘타의 개막식에서 백남준은 요셉 보이스, 샬럿 무어먼, 더글러스 데이비스 등과 함께 인공위성을 이용한 생방송 공연을 했다. 무대에는 <TV 브라>를 착용하고 첼로를 연주하는 무어먼이 있고, 그 옆에는 <TV 첼로>가 놓여 있었고, 백남준은 자신의 주요 퍼포먼스 작품들을 차례로 공연했다. 백남준은 비디오 카메라로 건반을 두드려서 피아노를 연주하고, 백남준의 <TV 부처>의 모습이 폐쇄회로 카메라에 잡히기도 했다. 백남준은 인공위성이라는 최첨단의 기술을 사용하면서도 음악과 미디어 아트를 오가는 유쾌한 퍼포먼스를 보여주었다.

○ 백남준, <글로벌 그루브>, 1973



뉴욕 방송국 WNET과의 협력으로 제작해 1974년 1월 30일에 첫 전파를 탄 이 작품은 '전지구적 흥겨움'이라는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다양한 문화권의 춤과 음악을 연달아 이어붙인 백남준의 대표적인 비디오 작품이다. 이 비디오에서는 로큰롤과 나바호족 인디언 여성의 북소리가 댕구를 이루고, 한국의 부채춤이 탭댄스 리듬과 부딪힌다. 또한 베토벤의 <월광 소나타>와 슈톡하우젠의 전자음악이 이어지면서 문화적으로 대립된 요소들이 동등한 지위를 획득하며 상호 공존한다. 백남준은 이처럼 이질적이고 대립적인 요소들을 이어 붙임으로써 향후 우리 앞에 전개될 텔레비전을 통한 세계화를 전망하며 국가의 경계를 넘어서는 복잡한 문화의 지형을 만들어내고자 했다.

○ 백남준, <부수적인 음악>, 1984



일본 NHK 방송국에서 열렸던 백남준의 퍼포먼스의 일부를 보여주는 비디오다. 폐쇄 회로 비디오 카메라를 이용하여 퍼포먼스를 벌이는 백남준은 비디오로 피아노를 연주하면서 실험적인 소리와 즉각적으로 변조되는 새로운 화면들을 보여준다. 카메라와 신체의 관계를 사운드와 함께 새로운 형식으로 보여주는 이 퍼포먼스는 백남준의 1960년대의 퍼포먼스와 실험 음악의 전통 가운데 있다.

○ 백남준, 〈피아노 콘서트〉, 1994/1997



백남준은 육체의 병을 얻은 뒤에도 왕성한 작품 활동을 이어나갔다. "피아노 콘서트"라는 이름으로 열린 이 퍼포먼스에서 백남준은 1960년대 그가 즐겨 보여주었던 파괴적이고 공격적인 행위를 거침없이 보여준다. 피아노를 계속 밀어뜨리며 결국 피아노가 부서지며 백남준은 그제야 고전 예술의 위선을 공격하고자 했던 그의 예술적인 의도가 이루어졌다는 듯이 만족한 웃음을 보였다.

■ 전시 관람안내

- 전시일정: 2024.10.28. - 2024.11.15.
- 전시장소: 경기도청 신청사 1층 로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 관람요금: 무료
- 관람시간: 오전 9시 - 오후 6시 (월-금)
- 휴 관 일: 토, 일